

‘가을 야구’ 막차 경쟁, 창원 3연전서 판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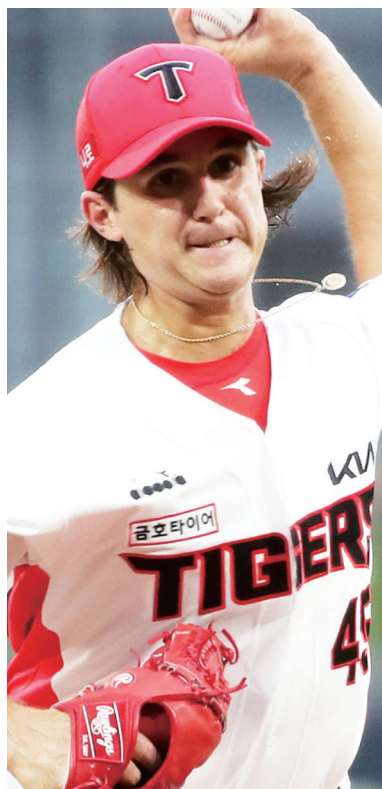
7연패로 쫓기는 5위 KIA
후반기 6위 바짝 추격 NC
시즌 성패 걸고 대격돌

갈길 바쁜 5위 KIA 타이거즈가 가을야구 막차 경쟁에 돌입한다.

KIA는 지난 1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과의 경기에서 6-9로 지면서 7연패 수렁에 빠졌다. 같은날 키움히어로즈에 5-1로 승리한 6위 NC와는 1.5경기 차로 쫓기는 형국이 됐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2연전에서 모두 스윙패를 당한 KIA는 지난 11일 잠실 두산전부터 7연패 기간동안 평균 2.5득점, 득점권 타율은 0.164에 그치며 좀처럼 승을 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최하위 한화를 상대로 12회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연패 부진에 빠진점이 뼈아팠다. 이 기간동안 팀 평균 자책점은 5.06, OPS는 0.655로 추락,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KIA의 선발진들은 7연패 기간에도 마운드에서 길게 버티며 제몫을 다했다. 42%이닝을 던지고 3.80의 평균자책점을 기



(왼쪽부터) 양현종, 임경영, 이의리, 놀린, 파노니

록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이 잘 던지면 타선이 침묵하고, 타선이 터질때는 불펜이 구명나며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어 불안하다.

이번 LG와의 홈 2연전과 NC와의 주말원정 3연전에는 가을야구와 함께 5위 수성이 달려있다. 후반기 들어 들쭉날쭉한 행보를 보인 KIA는 5위(62승67패1무)자리를 위

태롭게 유지해왔다. KIA로서는 LG와의 2연전에서 연패부진을 끊지 못하고 주말 NC와 만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20일부터 마주하는 LG와는 올시즌 4승 7패로 열세, 선두 SSG를 쫓아 매경기 총력을 펼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쉽지않을 전망이다. 22일부터 창원에서 열리는 NC전

은 운명의 3연전이다. 최근 투타에 걸쳐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NC는 5위 탈환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KIA로서는 NC의 거센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KIA가 LG를 상대하는 동안 NC는 9위 두산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KIA가 반등하지 못하면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KIA는 이번 LG전에서 놀린, 파노니가 차례로 마운드에 오른다. NC와의 3연전에는 양현종, 이의리, 임경영이 출격할 예정이다. 이번주 두 팀과의 대결은 KIA의 가을야구 진출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조혜원 기자

MLB-KBO 월드투어 사령탑 확정...머시니 vs 이강철

이강철 kt 위즈 감독(56)과 마이키 머시니 캔자스시티 로열스 감독(52)이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MLB 월드투어 코리아 시리즈 2022’ 양 팀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짐 스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인터내셔널 수석 부사장은 1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MLB 월드투어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 팀 감독을 공개했다.

머시니 감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이끌었고, 이때 오승환(현 삼성 라이온즈)과 한솔밥을 먹었

다. 캔자스시티 지휘봉은 2020년에 잡았다. MLB 연합팀 선수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스몰 부사장은 “한국을 방문할 MLB 선수 명단은 조율하고 있다”며 “약 2주 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MLB 연합팀은 미국 하와이주에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팀 훈련을 하고 9일 부산으로 입국한다.

이후 시차 적응 훈련을 한 뒤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 연합

팀과 1차전을 치른다.

11월 12일 오후 2시엔 KBO리그 10개 구단 연합 팀과 사직구장에서 2차전을 펼치고 서울로 이동한다.

3차전은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4차전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KBO리그 연합팀 선수명단은 KBO리그 기술위원회 회의의 거쳐 결정된다.

이날 기자회견엔 스몰 부사장과 허구연 총재, 박형준 부산시장, 장창익 동원개발 전무이사, 송선재 MLB 한국지사장, 이항준 프로모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MLB 연합팀이 한국을 찾는 건 1922년 이후 100년 만이다. /연합뉴스

안나린, 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3위

최운정 14위·최혜진 19위

안나린(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어메이징크리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최종 3위를 차지했다.

안나린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애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8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로 8언더파 64타를 쳤다.

3라운드까지 공동 14위였던 안나린은 마지막 날 8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1위 앤드리아 리(미국)에 2타 뒤진 공동 3위를 차지했다.

1번 홀(파4) 버디로 경기를 시작한 안나린은 3번 홀(파4)과 4번 홀(파4), 5번 홀(파5)에서 3연속 버디를 낚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이어 7번 홀(파5)에서 이글을 기록하며 전반에만 6타를 줄였다. /연합뉴스



안나린

안나린은 후반에도 10번 홀(파5)과 17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순위를 13계단 끌어올려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LPGA 투어에

데뷔한 안나린은 지난 3월 JTBC 클래식에서 단독 3위에 오른 뒤 6개월 만에 두 번째로 톱 3 진입을 달성했다.

17번 홀까지 안나린과 동물이었던다 르케야는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버디에 성공하며 18언더파 270타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운정(32)이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단독 14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LPGA 투어 데뷔 동기인 최혜진(23)은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 공동 19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도깨비·호랑이·삼태극’

월드컵 유니폼 공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이 입고 그라운드를 누빌 새 유니폼이 공개됐다.

스포츠 제품 브랜드 나이키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나이키 씨클81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공개 행사’에서 선수들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착용할 홈·원정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홈 경기 유니폼은 나이키가 한국 문화 정체성의 상징으로 꼽은 도깨비와 호랑이를 주제로 제작됐다. 상·하의가 모두 전통적인 붉은 바탕으로 제작된 가운데 깃과 나이키·대한축구협회 로고, 어깨 부분의



나이키가 19일 서울 강남구 나이키 씨클81에서 ‘2022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나이키 제공

줄무늬 패턴 등에 검은색을 섞었다. 원정 유니폼은 검은 바탕에 빨강, 파랑, 노랑의 원색 무늬가 상의 전면을 뒤덮고 있

다. 이는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 문양 삼태극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나이키는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서창완 근대5종아시아선수권 ‘은’

남자 단체 이지훈·김승진 합작

전남도청 서창완(25)이 근대5종 아시아 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창완은 18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2 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에 이지훈(한국수력공사·1,506점), 김승진(인천시체육회·1,459점)과 함께 출전, 합산 점수 4,454점으로 중국(4,511점)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2021년 세계근대5종선수권대회 혼성계주에서 우승했던 서창완은 지난 6월 터키에

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파이널 남자 결승에서 1,498점으로 전운태(광주시청)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메달은 본인의 월드컵 사상 첫 메달로, 올해 첫 대회인 월드컵 3차 대회 6위를 시작으로 4차 대회에서 4위, 그리고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레이저런(육상+사격)에서 장점을 보이며 차세대 근대5종 에이스로 성장중이다.

이지훈은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뤼쇠이(중국·1,517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은 전운태, 정진화, 김선우(경기도청), 김세희(BNK저축은행) 등 주전급 선



서창완

수들이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여자 개인전에서 금·은·동메달을 싹쓸이하고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남자 개인·단체전에서도 모두 메달권에 들며 기세를 이

어갔다. 대표팀은 이어질 남녀 계주 등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최진화 기자

안병훈, PGA 투어 개막전 공동 4위

호마 18번홀서 역전승

2022-2023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복귀한 안병훈(31)이 개막전에서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훈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의 실바라도 리조트 앤드 스파(파72·7,123야드)에서 열린 포티넷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한 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가 된 안병훈은 저스틴 로어(미국)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을 차지한 맥스 호마(미국·16언더파 272타)와는 4타 차다.

‘한·중 탁구스타’ 안재형, 자오즈민 부부의 아들인 안병훈은 2020-2021시즌 이후 PGA 투어 카드를 잃은 뒤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에서 한 시즌을 보내며 선전, 이번 시즌 PGA 투어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안병훈

개막전부터 1라운드 공동 3위를 시작으로 상위권에서 경쟁하며 첫 우승 기회도 엿보지만, 선두와 2타 차 4위로 시작한 최종 라운드에서 많은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순위를 지킨 것에 만족해야 했다. 2015년 5월 유럽투어 BMW PGA 챔피언십과 올해 2월 콘페리 투어 리컵 선코스트 클래식에서 우승한 적이 있으나 PGA 투어에서는 아직 우승이 없는 그는 새로운 시즌 첫 대회에서 경쟁력을 확인하며 기대감을 안겼다.

호마는 18번 홀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와 함께 PGA 투어 통산 5승을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약 20억원)다. /연합뉴스